

왜 살림정치인가? 왜 여성인가? 2012행동은?

우리 국민의 절대다수가 삶의 위기감에 짓눌려 있으며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사회 곳곳에 넘쳐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이대로는 안된다고 작심한 여성들이 지난 7월 28일 '살림정치여성행동2012'의 시작하는 모임을 열었다. 여성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다짐하는 여성들이 오는 9월 20일 창립모임을 개최하고 행동에 나선다.

이 캠페인은 살림정치를 희망하는 모든 여성들이 이제부터 함께 이끌어내야 하는 새로운 나라 살림 패러다임을 위한 열린 공간이다. 여기에 퍼내는 '살림정치여성행동2012'에 대한 9문 9답은 동참자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퍼내는데 실마리가 되기 위한 것이다.

1) 왜 살림정치인가?

살림이란 살려낸다는 것, 살림한다는 것, 그리고 보살핀다는 뜻이다. 정치란 국민의 삶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살림은 국가를 '국민의 가정'으로 간주하고 국민을 가족 돌보듯 보살피는 데서 비롯된다. 이것이 살림정치의 기본정신이다.

불안과 위기에 내몰린 사람들을 국가가 제대로 보살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는 국민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유지를 위한 정쟁으로 얼룩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들, 특히 여성들은 국민의 생활과 밀착된 생활정치를, 그리고 시민이 주권자인 시민정치, 살림의 가치 정치를 갈망하고 있다. 정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은 여성들이 왜곡되고 일그러진 정치지형을 바꾸어내기 위해 새 물을 대려고 한다.

살림정치는 나라의 생태환경을 살리고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지구환경을 살리는 일에도 일조할 것이다.

2) 오늘의 시점에서 '살림정치여성행동'이 내세우는 '절박성과 진정성'은 무엇인가?

2012년 이후의 한국사회는 지금과 달라야 한다.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 생존의 뿌리가 흔들리고, 희망을 걸 것이 없는 불안하고 위태로운 삶의 조건, 대결적인 남북관계와 전쟁에 대한 불안 등의 절박한 상황을 바꾸어내야 한다.

지금까지의 여성정치세력화의 주요목표가 여성의 권리회복과 참여확대였다면 이제는 여성 스스로가 새로운 정치지형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여성 스스로 미래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현재 위험상황에 처해있는 민주주의와 정치를 살려내는 일을 여성들이 보다 적극적이며 주도적으로 나서서 바꾸어내게 한다.

3) 살림정치가 추구하는 비전은 무엇이며 오늘의 현실을 바꾸기 위한 '큰 그림'은 그리고 있는가?

'살림정치'의 비전은

- 이익과 물질중심 사회를 생명중심사회로
- 양극화사회를 다 함께 잘사는 복지사회로
- 여성과 남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성평등사회로

- 5884
- 남북간 대결과 증오를 화해와 평화로 바꾸는 통합사회로
 -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 납세자로서 시민의 권리와 책임이 보장되는 시민사회로 바꾸는 것이다.

여성들이 신자유주의가 부각한 가족이기주의가 근간인 가정살림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성들이 살피고, 듣고, 보듬어주려는 살림정치의 이름으로 새로운 모습의 나라살림을 주도적으로 견인해내는 추진력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여성들이 국민이 갈망하는 대안세력이 되는 것이다.

4) 살림정치의 주역은 왜 여성이어야 하는가? 여성들이 살림정치와 특히 친화력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정살림과 나라살림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왜 또 여성이 살림을!’하는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여성들이 ‘살림정치’의 주역이 되겠다고 나섰다. 그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필요로 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은 지금까지 투여되지 않았고 그리고 전혀 다른 가치를 지향하는 새로운 힘에 의해서만 실현 가능하다고 믿는 데서이다. 여성들이 지난날 살아온 삶의 경험을 통해 조개 속의 진주처럼 아픔을 통해 체득한 살림의 가치가 만신창이인 오늘의 세계를 치유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으로 쓰이게 된 것이다. 세계가 지금 지속 가능하지 않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여성의 주도적인 역할을 꼽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나라살림도 주부가 가정 살림하듯 규모 있고 알뜰하게 국민을 보살펴야 한다는 것이 살림정치의 주장이다.

5) 여성들 간의 계층별, 세대별 차이와 이념적, 문화적 성향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묶어내고자 하는 이유와 방법은 무엇인가?

사회적 약자들의 힘은 연대하는 데서 발휘된다. 여성들이 무한경쟁의 신자유주의풍조에 의해 심화된 차이와 갈등을 극복해내고 그리고 사회적 다양성을 폭넓게 포용할 때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세상을 바꾸어내는 힘은 지금까지 앞장서온 20%에 더해 80%의 새로운 세력이 주체적으로 가담할 때 발휘된다. 여성정치참여의 롱테일법칙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롱테일법칙이란 상위 20%가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한다는 경제성장의 <파레토 법칙>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평범한 80%가 주도하는 시장을 말한다)

여성들 간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20%+80%의 참가자들이 각기의 꿈을 자유롭게 펴내기 위한 부문별(주부, 학생, 직장인, 종교인, 학계, 문화예술인, 언론인, 정치인 등) 마당을 마련한다. 넉넉한 사회, 안전한 사회, 보듬는 사회를 꿈꾸는 여성들이 정치적 상상력을 펼치고 즐겁게 활약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마당’을 만든다.

그래서 2008년 10대 소녀들이 커든 촛불이 백만인파를 모으며 정치지향점을 바꾸어낸 위력을 되살려야 한다.

6) ‘살림정치여성행동’의 2012년의 총선, 대선에서의 주요활동은 무엇인가?

현재 국민들은 말할 권리, 들을 권리, 촛불 켜 권리, 희망버스 탈 권리마저 빼앗겼다. 유일하게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유권자로서의 투표권 행사이다. 그리고 그 기회는 왔다.

2012년 양대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단기적, 그리고 미래사회를 대비한 장기적 목표를 구분해서 설정한다.

단기적 목표는

- 살림정치확산캠페인, 세대별, 관심사별 회원활동, 국민참여경선 등에 참여하는 '새로운 여성유권자 운동 전개'
- 살림정치 가치 및 의제 확산, 선거제도개선활동, 여성정치 지도력개발 등을 통해 '여성정치세력형성과 여성정치 지도력 배출'
- 정치개혁에 성평등시각통합, 정치개혁에 살림정치내용통합, 진보개혁정치세력의 연합 또는 통합을 위해 범살림정치세력연대와 정치개혁에 적극 참여한다.

장기적 목표는

- '살림정치여성행동'은 2012년뿐만 아니라 2014년, 그리고 2017년에 이어지는 모든 선거에서 살림정치의 가치를 실현해내기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살림정치여성행동'은 신자유주의시대 이후의 국민이 바라고 있는 미래사회의 밑그림을 마련하는 일에 힘쓴다. 생명을 중시하는,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국민을 보살피는 정치모델 등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대안조직들과의 공동노력으로 '살림정치'의 가치를 실현할 새로운 정권창출의 비전제시에 힘쓴다.

7) 정당활동에의 참여를 통한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정치 패러다임을 바꾸어내는 살림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법은 무엇인가?

우선 여성들이 정당정치에 다수 참여하고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책을 맡는 것이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여성이 참여하는가이다. 살림정치 실현의 의지가 투철한 여성이어야 한다. 수적으로 여성이 열세인 경우에도 여성들이 깨어있는 소수자로서 자기의 정치지향점에 대한 신념과 열정으로 동조자를 설득해낼 수 있다면 수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여성의 정치세력화는 여성정치인을 얼마나 배출해내느냐에 머물지 않는다. 여성의 정치력은 정치권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인구의 반인 여성들과 연대하는 데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정치권 내부의 소수의 여성정치인들이 여성의 대변자로서의 대표권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발휘할 때 영향력 있는 여성정치 세력화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정치 패러다임을 바꾸어낼 수 있다.

8) 살림정치의 여성유권자운동은 어떠한 과제와 접근방법에 주력하고자 하는가?

기본적으로 여성유권자들이 안주하고 있는 보수성과 정치 무관심을 떨치고 투표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살림정치일꾼을 선택하게 이끄는 것이다. 미국의 무브온(Move On) 캠페인의 다양한 양식을 활용할 수도 있다.

오늘의 신자유주의 거버넌스가 특히 여성의 삶을 피폐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들이 개선을 위한 공동노력을 뒷전으로 한 채 개별적인 차원에서 삶을 관리하려는 경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들 여성 유권자들에게 개인의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공감능력을 회복시켜 연대해서 문제 해결을 하도록 한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2008년 촛불시위에서 10대 소녀들이, 유모차 엄마들이, 하이힐 직장여성들이 보여준 생활정치에 대한 갈망이 일궈낸 전례가 우리에게 실현 가능성의 밝은 전망을 보여준다.

9) 살림정치가 미래의 대안사회를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때 여성만의 힘으로 가능한가?

살림정치의 정신은 여성만의 독점물이 아니다. '살림정치여성행동'이 별도의 조직을 통해 가치실현을 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이제는 여성들이 더 이상 뒷전에 머물며 누가 해주기를 바라지 않겠다는 깨우침에서이다. 세상을 바꾸는 일에 주체적이며 주도적으로 앞장서겠다는 여성 유권자들이 함께 하는 장으로 시작하지만 '살림정치여성행동'은 뜻을 같이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의 광장으로 활용될 것이다.

'살림정치' 실현의 싱크탱크를 비롯한 다양한 기구에 남녀구분 없이 참여의 문이 열려 있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 주변에는 깨어 있는 사람이라면 피해 갈 수 없는 화급하고도 절박한 과제들이 넘쳐난다. 그럼에도 우리가 정치권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여성행동을 우선하는 것은 정치권을 바꿔낼 때 많은 문제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조건을 우리가 만들기 위한 '살림정치여성행동'의 출범을 알리며 뜻을 같이 하는 남녀 모든 분들의 참여를 권유한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열음을 깨는 바늘 끝 역할을 해낼 것으로 확신한다.

'함께 합시다.'